

보도시점 2025. 4. 18.(금) 11:00(회의 종료 후) 배포 2025. 4. 17.(목)

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1,753억 편성, 산불·싱크홀 등 재난 대응에 집중 투자

- 산불 피해의 조속한 회복과 향후 산불·싱크홀 등 재해 대응력 강화에 중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싱크홀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75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1,120억원 증액한다. 이는 2025년 본예산(350억원) 대비 3배 이상 추가 편성한 것이며, 영남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농업시설 및 공장의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 및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❷ 국립공원의 산불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7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유사시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노후 헬기(1대)를 적기 교체하고, 고성능 산불 진화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여 기존 4대를 포함 총 6대를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장비 확충을 통해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초기진화 및 확산 방지에 적기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❸ 싱크홀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확대한다. 전국 9개 광역시·도의 노후 하수관로 중 38개 계속사업에 505억 원을 증액하여 조기 준공을 유도한다. 또한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서울시에도 하수관로 정비 예산 5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한다. 이번 추경으로 서울시는 '21년부터 '23년까지 하수도과 관련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한 27개 지역 내 노후·불량 관로 정비를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2025년도 환경부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붙임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 끝.

담당 부서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담당관	차은철	(044-201-6330)
		담당자	서기관	김무연	(044-201-6337)
		담당자	주무관	김희영	(044-201-6342)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증액	반영 내용
<합계>		+175,294	
재해대책비	폐기물처리비용	+112,000	• 영남지역 8개 시·군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국립공원공단출연	사업출연비	+7,650	• 국립공원 산불 초동 대응 강화 - 헬기 1대 노후 교체 및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2대 도입
하수관로 정비	노후 하수관로 개량	+55,644	•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 계속사업 38개소, 서울시 신규사업 27개소